

주술적 메시지의 오염과 설교자의 책임

장세훈 | 편집인 (구약신학 · 부교수)

구약의 메시아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서 9:6입니다. 여기서 메시아적 인물인 한 아기는 “모사”라고 묘사됩니다. 이 “모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요에쯔”인데 “책략”, “모략”, “계획”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짜”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직 여호와와 뜻만을 의지하여 그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심을 강조합니다. 이와는 달리,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계획을 신뢰함으로써 실패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르호보암은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납니다(왕상 12:1-15). 여기서 “자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패망 당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계획을 더욱 신뢰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르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영과 성공만을 외칠 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평안과 성공만을 노래하는 이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들의 뜻에서 비롯된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에짜”를 버리고 인간의 “에짜”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 메시지가 난무할 때, 등장하는 또 다른 현상이 바로 주술에 대한 의존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의 불안감을 무엇으로 해결하려 했을까요?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타결하는 해결책으로서 이방신의 주술적 힘을 신뢰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한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렘 14:14).

심지어 예레미야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를 함께 비판하며 이들이 거짓 메시지로 백성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29:8). 그렇다면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27:9)고 선포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들과 점술가들은 바

벨론에 의한 멸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평안의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대중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술사나 점술가들과 같이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와 불의로 물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대중들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는 비단 예레미야 시대에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즘 대중매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관심사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점술입니다. 특히 타로와 같은 방식으로 현세의 운을 점치는 점술가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이들에게 큰 호응을 끌고 있음은 이제 그리 낯설지 않은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점술의 영향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종종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따르면, 어느 교인들조차도 현세의 복을 위해 사주, 관상, 점술 혹은 타로와 같은 주술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술적 메시지는 물질적 복과 성공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을 노리고 있기에 그 유혹의 힘은 더욱 강렬합니다. 이런 무속적 매개를 통한 인간 욕망의 성취를 꿈꾸는 현 시대에, 교회의 설교자들 역시 이런 시류에 휩쓸려 사람의 세속적 욕망을 부추기며 그 욕망을 도구삼아 위선적 열심과 헌신을 부추킨다면, 이런 강단의 목회자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크게 다

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며, 참된 회개의 자세를 회복하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강단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이 죄악된 욕망을 선동하는 주술적 메시지의 유혹에서 벗어나 참된 회개의 중요성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갈망하도록 이끄는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